

# 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4.24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## I. 국내

### □ 지자체

- **충남도, 수소전기 항공모빌리티 시험평가 기반 구축 '속도'**(25.4.22, 파이낸셜뉴스)
  - 충남도는 22일 태안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에서 '그린 도심항공교통-미래형 항공기체(UAM-AAV)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' 추진을 위한 '2025 제1차 사업운영위원회 및 워크숍'을 개최
  - 구축을 완료하면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의 정밀 시험평가가 가능한 설비를 갖추게 되며, 앞으로 국내외 수소전기 미래항공기체의 성능 검증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
### □ 기관

- **한전KPS,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...기반시설·운영협력 수행**(25.4.23, 뉴시스)
  - 한전KPS는 부안군, 전북테크노파크, 한전KDN,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
  - 한전KPS는 안산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소도시 특화요소에 해당하는 '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협력'의 역할을 맡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

- 하이브리드부터 수소차까지...친환경차 정보 한눈에(‘25.4.23, 그린포스트)
  - 한국에너지공단은 친환경차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‘친환경차 누리집’을 개설했다고 23일 밝힘
  - 누리집에서는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통합 정보 확인이 가능

## □ 해외시장 동향

- 영국, 하수슬러지 가스로 청정수소 생산 추진(‘25.4.22, 가스신문)
  - 맨체스터에 있는 유나이티드 유틸리티의 최대 폐수 처리 공장에서 하수 폐기물의 가스를 사용하여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
  - 연구에 따르면 하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완전 지속 가능한 원료로 사용하여 연간 최대 75,00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발견되었으며, 이는 영국 전체 버스 등 여정의 40% 이상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함

## □ 기획

- ‘2025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’ 개막(‘25.4.23, 뉴스1)

## II. 해외

### □ 글로벌 정책 동향

#### ○ 코스타리카, 중남미 최초 MAF 선정되어 2,500만 유로 규모 그린 수소 프로젝트 승인(H2Lac, 25.4.21)

- 코스타리카\*의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MAF\*\*로부터 중남미 최초로 2,500만 유로 규모 재정 지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함

\*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최초로 '국가 수소 전략'을 발표하고 공공-민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국가

\*\* MAF(Mitigation Action Facility): 기후변화 대응·탈탄소 전환을 위한 다자기금

- 프로젝트 제안은 독일 GIZ\*가 코스타리카 정부를 대신 제출하였으며, 오는 '25년 9월 1일부터 공식 착수 예정임

\* GIZ(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): 독일 정부 산하 국제개발협력기구

- 해당 프로젝트는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(시멘트·중장비 운송 등)에 수소를 대안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프로젝트 주요 내용

항목	세부 내용
재정 지원	-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수소경제 분야 특성을 고려해 보조금·저리융자 등 '융합형 금융 지원(concessional finance)' 제공
기술 지원	- 법·제도 정비, 전략 수립, 인적역량·제도역량 강화, 직업훈련·인증체계 등 국가 차원의 수소 인프라 기반 구축
지속가능 발전 목표	- 청정 에너지 확산, 고용 창출,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 등 환경적·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합 전략 추진

- 이는 기존 유럽 중심의 수소경제 확산이 신흥국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으로 중남미에서 수소 경제 본격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됨

## □ 글로벌 산업 동향

- **OMV, 오스트리아 내 모든 수소충전소 '25년 9월까지 전면 폐쇄 결정**(FuelCellsWorks, 25.4.22)
  - 오스트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 OMV가 운영 중인 전국 유일의 공공 수소충전소 5개소\*를 '25년 9월까지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함
    - \* OMV 수소충전소 5개소: 비엔나(폐쇄 완료), 그라츠, 인스브루크, 아스텐, 비너 노이도르프
  - 폐쇄 이유는 시장 수요 부진과 운영 손실 누적으로, 해당 결정은 시장환경 및 OMV의 전략 방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로 발표됨
  - 본국에 현재까지 수소충전 인프라를 인수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 대체 사업자는 없는 상황으로 독일 등 인접국 대비 수소 인프라 구축에서 심각한 격차 발생할 예정임
  - 독일·프랑스·네덜란드 등은 국가 차원에서 수소 인프라 확대 중이며 EU 공통 네트워크 구축을 준비 중인 반면, 오스트리아는 자체적인 수소 공급 및 소비 체계 구축에 실패하면서 인접국 의존도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



자료: OMV, 수소충전소

## □ (안내) 2025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추천(신청) 공고

-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였거나,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,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(신청) 바랍니다.

\* [링크 바로가기](#)  클릭

# 2025년도 수소의 날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를 찾습니다!

 신청기한 2025. 4. 30.(수) 18:00 까지

 포상대상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

 포상훈격 산업훈장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
※ 변동될 수 있음

 포상수여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 
(2025.11.3. 예정)

 신청방법 이메일(prize@h2korea.or.kr)로  
공적조서 등 서류 제출

 문 의 한국수소연합  
정책지원실  
02-6258-7473

자세한 사항은 '2025년도 에너지 산업발전 및 효율향상 유공자 포상 추천(신청)공고'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